

고양시민과 거리예술축제의 '가장 안전한' 만남

2020 고양호수예술축제
프로그램 이모저모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고양호수예술축제 (Goyang Street Arts Festival)가 9월, 고양시민들을 찾을 예정이다. 고양호수예술축제는 2008년에 시작된 고양시의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국내외 우수한 거리예술단체들의 공연이 일산호수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거리예술축제다. 올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4일간 일산 호수공원과 일산문화공원, 고양아람누리 일원에서 진행되며 총 47개 거리예술단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글 지준희 사진 고양문화재단

11th GOYANG STREET ARTS FESTIVAL

QR코드를 찍으시면
더 많은 고양호수예술축제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축소·연기·취소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한 축제 준비

2020 고양호수예술축제의 슬로건은 '변화된 일상, 마주하는 거리예술'이며, 야외축제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축제'다. 축제의 속성상 불특정 다수 관람객의 집합이 불가피하나,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고양호수 예술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향후 문화예술, 특히 거리예술 분야에 발생할 모든 변화를 조심스럽게 반영하면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넘어서는 거리예술축제의 새로운 진화를 도모해 108만 고양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호수예술축제 공식초청작 - 보이스씨어터 MOM소리 '숨, 자장가'



호수예술축제 공식초청작 - 호모루덴스컴퍼니 '달갈귀신'

축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해외초청작을 폐지하였고, 지난 4월~5월 간 국내초청작, 자유참가작, 고양동행작, 고양이음작 4개 부문의 공모를 진행했다. 이 중 올해 신설된 고양동행작과 고양이음작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예술계와의 상생을 위해 고양지역 거리예술 가능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정 공모였다. 최근 5년간 진행됐던 공모 중 가장 많은 182건의 작품이 신청되었고, 그중 45개 예술단체의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작들은 최근 우리나라 거리예술축제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그 기량이 검증된 거리예술단체들의 대표작과 신작들이어서 큰 기대를 모은다. 이와 더불어 교육참여, 버스킹, 온라인 공연중계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거리예술포럼 및 각종 전시와 체험, 씬터 등이 운영되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장소 및 운영방침

과거 고양호수예술축제의 진행 장소가 일산호수공원 수변 중심의 횡적인 라인이었다면, 올해는 관람객의 분산과 새로운 축제 장소 발굴 등을 위해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공원 그리고 고양아람누리로 이어지는 종적인 라인으로 새롭게 개편됐다. 하지만 관람객의 출입구는 한 지점으로 한정해 통제하는 '오픈 스테이지'와 25m×25m 사이즈의 가벽으로 조성한 야외공연장 '가벽 스테이지' 등을 운영하는 동시에 사전예약, QR코드 문진, 발열체크 등으로 정부지침 방역을 최대한 구현할 예정이다. 이외에 관람객이 공연주문 신청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딜리버리(Delivery) 스테이지', 자동차 형태의 야외객석 제작으로 거리두기를 구현하는 '드라이브인(Drive-In) 스테이지'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1. 호수예술축제 공식초청작 - 예술불꽃 화랑 '소녀와 불꽃옹'
2. 호수예술축제 개막작 - 프로젝트 날다 'SKY 밴드'
3. 호수예술축제 개막작 - 미켈레 솔루션 '쿠오레의 행진'
4. 호수예술축제 공식초청작 - 창작중심 단단 '꽃과 여인'

다양한 구성이 돋보이는 국내초청작 공연

올해 공연은 해외초청작이 없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국내초청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선정된 총 13건의 작품은 거리극과 퍼포먼스, 서커스, 거리무용, 공중 에어리얼, 이동형 퍼레이드, 전통연희, 불꽃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품 대부분이 2020년 신작이거나 고양호수예술축제에는 처음 선보이는 것이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보다 자유분방한 거리예술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자유참가자 분야에서는 총 19건의 작품이 공연될 예정이다. 마술과 마임, 버블과 벌룬, 음악, 인형극, 거리극 등 대중 친화적인 신진예술가의 작품들이 포함되며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 주말에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또한,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예술 단체의 작품인 고양동행작과 고양이음작 분야의 공연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2020 고양호수예술축제의 개막식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람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2일 차인 9월 25일 금요일 저녁 일산호수공원의 석계산 안쪽 오픈 스테이지에서 펼쳐진다. 대형 크레인을 활용한 공중장치에 매달려 연주와 퍼포먼스를 펼치는 공중 에어리얼 단체 '프로젝트 날다'의 <SKY 밴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4.2m 높이의 대형 LED 발광 인형이 다양한 동작을 하며 퍼레이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미켈레 솔루션'의 <쿠오레의 행진>, 공중 퍼포먼스 예술단체 '창작중심 단단'의 <꽃과 여인> 3가지 작품이 연속 공연된다. 폐막작품은 축제의 마지막 날인 9월 27일 일요일 저녁, 개막식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된다. 국내 독보적인 불꽃 거리예술단체인 '예술불꽃 화랑'이 고양시를 주제로 스토리텔링한 융복합 불꽃 거리극 <소녀와 불꽃옹>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 폐막공연 후 불꽃공연 등의 화려한 이벤트 피날레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의 여러 여건과 정서를 고려하여 진행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거리예술축제를 위한 노력

예술 활동, 특히 야외공연을 매개로 관람객을 만나는 거리예술. 그리고 다양한 거리예술 작품들의 집합체이자, 그를 통해 강력한 에너지를 창출하는 거리예술 축제. 거리예술축제의 필수요소는 어쩌면 관람객들과의 대면을 통한 교류일지도 모른다. 대면을 포기하는 대안은 일시적일 이벤트일 수밖에 없으며 오래 지속하기 힘든 미봉책과도 같다. 고양호수예술축제는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이 수행 가능한 모든 방역 수단을 강구해 마련한 자리로, 거리예술축제와 관람객의 '가장 안전한 만남'을 유지하고자 한 관계자들의 심사숙고를 통해 기획됐다. 예술과 상생하는 축제, 관객과 예술가를 연결하는 축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보장하는 축제의 역할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기 위해 마련된 2020 고양호수예술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2020 고양호수예술축제에 관한 정보는 방문 전 반드시 '고양호수예술축제 홈페이지(www.gylaf.kr)'를 통해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 고양호수예술축제 진행 장소 개념도



주요 프로그램 일정표

일시		장소	공연단체	공연작품
9월 24일(목)	14:30~15:00	일산문화공원	예술무대산	선녀와 나무꾼
	16:00~16:50	일산문화공원	마린보이	고물수레
9월 25일(금)	18:30~19:00	일산문화공원	비주얼아트 연구소	양심의 우산
	17:30~18:15	한울광장	공작소 365	목공들이 만드는 이야기 '피노키오'
	20:15~20:45	석계산 일대	프로젝트 날다	SKY 밴드
	20:45~21:00	석계산 일대	미켈레 솔루션	쿠오레의 행진
	14:00~15:00	일산문화공원	호모루덴스 컴퍼니	달갈귀신
9월 26일(토)	14:30~15:10	달맞이섬	우주마인드 프로젝트	미래, 도시
	18:30~19:20	노루목 야외극장	브러쉬 씨어터	매직드로잉쇼 '두들팝'
9월 27일(일)	16:30~17:20	아람누리 광장	비주얼 씨어터 꽃	돌, 구르다
	18:00~18:45	일산문화공원	연희집단 The 광대	당골포차
	19:45~20:20	석계산 일대	예술불꽃화랑	소녀와 불꽃옹

※ 상기 프로그램 일정은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